

4·3특별법 개정, 전국 시도의회 힘 받나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 “특별법 조속 개정” 한목소리 일부선 의회 차원 건의안도 좌남수 의장, 오는 17일부터 광역의회별 방문 발의 요청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한목소리로 “제주 4·3특별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탤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2일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일에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남남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좌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를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좌 의장은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 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최대 규모 국제 환경회의, 제주로”

2023년 유엔기후협약 총회 한국 개최국 선정시 유치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7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을 이행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로,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제28차 총회는 2023년 하반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해 COP28를 국가행사로 최종 승인했고, 환경부는 COP28 총회 유치의향서를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 제26차 총회에서 COP28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되면, 개최도시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제주의 ‘카본프리 아

일랜드 2030’ 정책 홍보와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COP28 제주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COP28 유치를 위해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비롯해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등 청정 제주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6차례의 정상회의, ASEM 재무장관회의 등 다수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이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COP28 개최도시로 선정되면 제주의 그린뉴딜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주간의 회의 기간 동안 2만여 명이 체류함에 따라 1583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2020년 2월 광주전남연구원)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한라수목원 서쪽 도로 개설

제주시는 한라수목원 서쪽 일대 보행자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수목원 서길과 2개 도시계획도로 등 3개 노선에서 총길이 584m의 도로개설사업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라수목원 서쪽 도로 개설은 제주지방경찰청 신축 예정에 따라 원활한 진·출입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 총연장 584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

도로 개설에는 총사업비 35억원(공사 19억, 보상 16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2022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분주한 농사일 지난 1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마늘 파종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없던 일로

승인 조건 불이행 효력 상실

중국 자본이 투자하려던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을 공고했다. 2019년 3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한 후 사업착수기한 및 사업착수기한 연기(2020년 9월7일)시까지 개발사업승인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투자 자금 조달 능력 검증 등을 자기자본 등 769억원을 착공 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 바 있다.

한편 사업자는 2021년까지 7431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간 일대 86만6000여㎡에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른기자

건축 민원 불만 ‘중재’로 푼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 민원 심의 및 불만을 해소하는 중재기구인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주도 건축조례 개

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법령 운용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고, 민원 불만을 객관적으

로 해소하는 중재기구다. 위원회는 건축 과정 중 각종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인)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과정 중 각종 기술적 사항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민 공동시설의 탄력적 설치·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도 주민 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공사 중단 및 장기간 방치를 대비해 예치하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예정공사기간 기준 1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향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도는 이 기간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른기자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선정 한림·조천 등에 11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11억6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1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는 총 19개 사업이 신청했

으며, 심사를 거쳐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5개 사업과 지역을 보면 한림 서담파개 사업(한림읍), 지역생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한림읍), 세계자연유산마을 마을학교 운영 사업(조천읍), 함께돌봄사업(삼도2동), 표선 문화공동체 훈디 만들기 사업(표선면)이다.

제주도는 사업별 지속적인 컨설팅과 함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강사)을 최대 3년간 지원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고, 강사 지원시스템 인력풀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그랜드보청기

추석한가위 111개 더드림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삼촌들 혼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중전식 컷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조금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와이덱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CGV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